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농협

**2025
APEC
INCHEON**
 국제 최대 경제포럼
세계 최대 비즈니스 허브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천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312호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인요한 혁신위원장, 제주 4·3공원 참배 “우리가 빛진 사람 잘 모셔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4일 제주도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들과 함께 오전 공원을 찾아 희생자 위령제단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어 위폐봉안실을 들러본 뒤 방명록에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평화의 제주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尹대통령, 4·3 추념식 매년 오는 게 타당…내년 참석 건의

‘원희룡 제주 출마’ 요구에 “서울 가서 전달…결단은 본인이”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린 시절 여수·순천 10·19 사건과 함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순천도, 제주도, 군인과 경찰이 명령에 복종하며 희생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 도리이다. 정치권에서 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매년 오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정에 의해 못 오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말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기회가 되면 (참석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또 “4·3 보상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전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장관과 직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그것도 하나의 혁신”이라며 “우리가 빛진 사람을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격상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인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당내에서 불거졌던 각종 4·3 관련 발언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당시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인 위원장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격 낮은 기념일’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자기 잘못을 고백했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발언 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인 위원장 외에 김경진 박우진 송희 이재만 정선화 최안나 혁신위원장이 동행했다.

혁신위는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실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등 당원 및 지지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년 총선 제주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허 도당위원장은 “제주는 정치적 힘자 아닌 불모지”라면서 “영남의 ‘스타 정치인’이 서울·경기 힘자로 가는 것에 대해 100% 찬성한다”며 “그러면 제주 불모지는 누가 오나. ‘스타 장관’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결단은 각 국회의원 하실 분 본인이 해줘야 한다.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하는 것을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보상할 것이라고 본다”며 “서울 가서 (원희룡) 장관에게도 전달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또 “서울과 수도권 의원 수가 많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말을 많이 한 것을 후회한다”며 “제주도 중요하다. 행기겠다”고 밝혔다.

/ 박민준 기자

Photo News



수능 앞두고 교사 격려하는 이주호 부총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3일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험장인 서울 성동구 금호고 교무실을 방문, 교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명씩 탄핵 추진

정치적 계산으로 남발”



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나”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현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넘는 장사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 신지호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尹대통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

국무회의 주재…“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 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지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제정을 애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꼼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열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고 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

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

/ 송원기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

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하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내야만 한다.

다면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부는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페아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곽정윤 기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에너지 절약



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천만원 부과

뉴스스타파 인용 등 초유의 징계…방심위원장 “검증 중요성 일깨우는 변곡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천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천 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천 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천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 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지

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지상파의 경우 연말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상황이라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

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

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안형준 MBC 대표이사가 연이어 방심위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 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與 혁신위원 “인요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 전혀 없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 출마가 점쳐졌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혁신위원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 위원장은 취임 이후 혁신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며 "본인은 출마할 뜻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취임 전날인 지난달 22일에도 서대문구 지역 행사에 참석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출마하라고 부추겨서 한두 차례 행사에 참석했던 것 같다"며 "혁신위원장을 맡은 뒤로는 출마 생각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전했다.

1991년부터 32년간 세브란스병원 국제 진료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인 위원장은 그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속한 서울 서대문갑 출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민의힘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은

공석으로,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인 위원장은 이날 JTBC와 인터뷰에서 내년 서대문 지역 총선 출마 질문에 "아니다. 다 내려놨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물론 유혹은 받았다.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정치적 혁신을 위해 일평생에 이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인 위원장의 수행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이성현 서대문구 청장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구청장은 작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서대문갑 당협위원장 을 지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인 위원장의 출마를 고려한 인선은 전혀 아니고, 평소 교류해온 인사로 안다"고 설명했다.

/ 송유영 기자

수능 영어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소음 통제

국토교통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6일 오후 1시 5~40분(35 분간)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간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비상 대기해야 한다. 단 비상·긴급 항공기의 이착륙은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운항이 계획된 94편(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

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각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흐름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이용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조규형 기자

대검 “악질 불법추심은 구속수사…스토킹처벌법도 적용” 각 검찰청에 ‘엄벌’ 방침 지시…“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대검찰청은 13일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용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추심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는 빠짐없이 기소하겠다"며 "강요·공갈·성폭력 등 불법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

했다.

아울러 추심을 핑계로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사채업체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처분,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낮은 선고형에 대해 적극 항소하겠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용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야자의 피를 빼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를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 김형욱 기자

탄핵 대상 지목된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재판 이달 말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손준성 검사장이 "2년이 넘도록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둔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오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검사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밝이했다가 이를 날 본회의가 불발되자 철회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

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 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발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용 의원과 통화한 한 언론기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이 기자는 "없는 사실을 기사로 쓰지는 않았다"며 "김 의원이 '고발을 묻는다'는 취지로 통화가 성사된 것으로, '(고발장을) 전달을 받아서 보낸 거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며 본인의 난처한 처지를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친구인 손준성과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거 같다. 공작한 것은 흥분표로 보이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자신을 당으로 끌어들인 유승민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 같아 묘한 역학관계가 이야기할 길이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였나"라고 묻자 기자는 "안 난다는 쪽보다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쪽이고, 손준성과는 교감·연락을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 한수훈 기자



있는데 친구인 손준성과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거 같다. 공작한 것은 흥분표로 보이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자신을 당으로 끌어들인 유승민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 같아 묘한 역학관계가 이야기할 길이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였나"라고 묻자 기자는 "안 난다는 쪽보다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쪽이고, 손준성과는 교감·연락을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 한수훈 기자

野, 총선 겨냥 입법 속도전…“학자금 대출법 정기국회 내 통과”

개인채무자 보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 등도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보름 남짓 남은 정기 국회 기간에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정리하고 이를 법안의 입법에 속도전을 벌일 테 세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 경제 회복 기조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에서는 민생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계획한 주요 법안 중 대표적인 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아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소위 부자집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주게 된다는 여당의 비판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대학생의 48.5%만이 소득 8구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에 해당하므로 여당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서 직회부해 본회 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내지도부는 개인채무

자 보호법 등 민주당의 주요 중점 처리 법안들을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고, 변제 의지가 떨어져 ‘빚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

안의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를 계획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도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을) 재추진 하려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일몰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청년 관련 일몰법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몰법안까지 함께 합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여원산악회 창립기념식 참석한 장제원 의원

장제원, 지지모임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며 서울 가지 않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최근 지지자 모임에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유튜브 ‘KTN한국TV’뉴스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장 의원은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15주년 창립 기념식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지자들을 상대로 부산 사상 지역구 사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구 현안 사업 및 예산 확보 성과 등을 소개한 뒤 “그런데 서울에 가래요. 서울 가립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주류 응원론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진성훈 기자

그러나 장 의원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업적을 탐하라고 했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며 “여러분과 우리가 꿈꿔왔던 사상 발전의 꿈을 완성하는 그 업적 하나로 난 죽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서울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며 장 의원 발언에 호응했다.

장 의원이 십여년간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여원산악회는 그의 핵심 외곽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장 의원은 이 행사 참석 직후인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버스 92대 4천200여 회원이 운집했다”는 글을 올려 인 위원장의 요구를 정면으로 일축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장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구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해 신앙간증을 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영상에서도 “마흔살부터,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 풍파를 겪었다”면서 “또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 서종익 기자

與 “1기 신도시법에 野 태도 변화…연내 통과 가속도 붙길”

野 ‘특별법 연내 통과’ 입장 내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 시그널”

국민의힘은 14일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담은 노후 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이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석하게도 지난 3차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

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불기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그간 국회를 믿고 기다려 준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

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오는 29일 소위에서 네 번째로 논의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진성훈 기자

송영길 이어 민형배도 “정치 후지게 한건 한동훈같은 XX”

송영길 ‘한동훈 어린놈’ 원색 비난 등 野인사들 잇단 공격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린놈’이라고 원색 비난한 것을 두고 한 장관과 공개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며 한 장관을 겨냥한 비난전에 가세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에 대해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지럽히고 있다”며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그는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숨이 막히



민형배 의원

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시민 기본권 침해

와 민주주의 절차 훼손, 정치 사법화를 통

한 국가권력 사유화 같은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검찰권을 대

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다

는가. 독재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다.

존재 자체가 후지다”고 쏘아붙였다.

민 의원은 “아래와 같은 맷글 하나를

그 XX에 되돌린다”며 ‘대한민국 헌정 역

사상 이렇게 입이 가볍고 허가 길고 대놓고 정치적인 국무위원이 또 있었나 싶다’고 쓴 한 인터넷 댓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경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며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고 맞받았다. / 권도훈 기자

전북도, 삭감 예산 회복에 총력…비상 상황 대응 ‘워룸’ 가동

“전시라는 각오로 최선”…도지사, 서울 머물며 국회 예산안 심사 대응

전북도가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도지사 중심 지휘체계를 꾸린다. 도는 특히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규모 삭감에 따른 후폭풍을 ‘전시 상황’에 빗대고 국회 단계 예산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및 주요 현안 국가 예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워룸(War-Room)’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워룸은 군대의 작전실이나 기업의 전략 회의실 등을 일컫는 말로 긴급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핵심 조직을 뜻한다.

과거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기업 등은 대내외적인 위기 때마다 워룸을 가동했다. 누적된 적자로 200조원대 부채를 끌어안은 한국전력의 최근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간 도는 예산 철마다 서울본부나 현장 상주반을 통해 의원 실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으나 올해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지사가 국가 예산 활동을 지휘한 사례는 있었지만, 도지사

가 서울에 머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 반영액 6천626억원 중 78%를 삭감한 1천479억원만 배정한 게 이번 결정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앞으로 국가 예산을 기재부 삭감 예산과 부처 과소·미반영 예산, 시군 현안 예산 등으로 나눠 정부 부처와 의원실을 돌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과정 전반을 지휘하고 매주 2차례 국회에서 삭감된 국가 예산 복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새만금 SOC 정상화를 포함한 국가 예산 확보”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예산 상황에 적기에 대응하려면 현장 대응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이기 때문에 전시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민재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어린이들이 누구나 어디나 행복으로 빠짐없이 행복하도록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자산운용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엔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펀크

하나금융그룹

1심만 26개월 '청주 간첩단' 재판 본격화하나…송영길 증인 채택

재판부 “이달 중 증거능력 조사 마무리…2월 안에 선고 계획”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송영길 전 더 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손모(49)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송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 해당 파일에는 남북 철도 사업과 피고인들이 추진한 ‘북녘 통일 방안’ 등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과 별도로 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 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재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

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병합을 불허하기로 하자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김씨에 대해서는 분리 판단 심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양쪽의 이해 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 송진영 기자

‘계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통일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봤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소환장이 송달되더라도 송 전 대표는 업무, 개인 신상 관련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 전 대표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없이 청주 간첩단 사건 공판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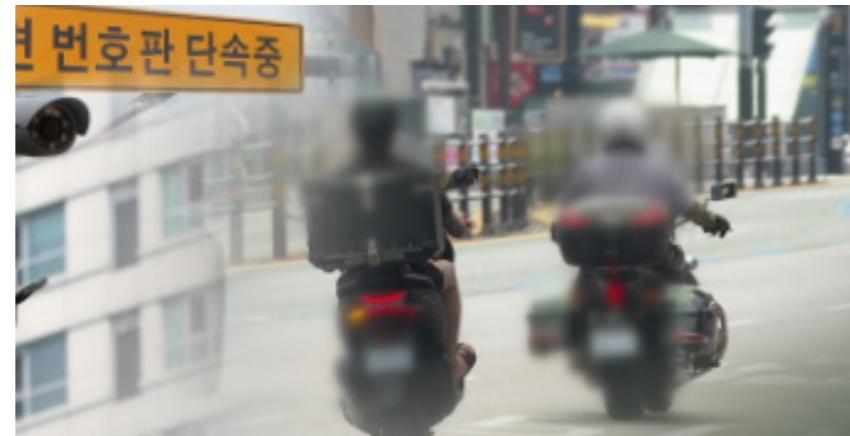
재판부는 송 전 대표를 포함한 이명주 진보당 청주시 지역위원장, 손씨 아내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이달 중에는 증거 능력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12월부터는 증인신문 등 사건 실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2월 안으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총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 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6개월 째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도 피고인 중 1명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되기도 했다.

/ 강동호 기자



경남경찰청, 오토바이·전동킥보드 사고 막는다

경남경찰청은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이러한 교통수단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188명 중 오토바이 사망자는 4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6%를 차지했다고 설명 했다.

전동킥보드 사망자는 1명이다.

경찰은 이번 주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3주간 집중 단

속에 나선다.

오토바이는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을 단속하고, 전동킥보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운행이 많은 도내 식당가, 대학가 등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이러한 단속과 함께 배달대행업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를 공유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박지현 기자



이스타항공(CG)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겨눈 검찰

중진공 등 3곳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스타겟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3일 종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경남 진주 본사·서울 사무소),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수사 범위가 넓어 늦은 오후에야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특혜 채용 의혹은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스타겟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건을 말한다. 서씨의 채용(2018년 7월)에 앞서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서씨의 전무이사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사이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의혹뿐인 두 채용 사이의 대가성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문 전 대통령 또한 사법 리스크를 떠안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이 전 의원, 문 전 대통령, 박석호 타이스타겟 대표 등이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이 사건을 담당하는 전주지검 3부에 김현우부장을 배치, 수사력을 보강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할 뿐”이라며 ‘전 정권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박지윤 “이혼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 고소…합의·선처 없어”



KBS 아나운서

이라며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지윤이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 혼 사실을 합법화하는데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 사실이 유튜브, 소셜미디어(SNS)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윤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3일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향후 무분별한 루머(소문) 유포를 모니터링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

/ 유경희 기자



주소기업 성장을 향해
우리, 함께, 같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 국내 산업현장의 성장을 이뤄낼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상생 ”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19년동안 94만명의 외국인력 입국

이스라엘 “하마스 남쪽으로 도주”…이軍 하마스 의사당 점령설도

“가자지구 주민들, 하마스 기지 약탈…정부에 대한 신뢰 없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전황 평가를 마치고 “이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제지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 우리 군은 가자지구의 모든 곳에 진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테러범들은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으며, 민간인들이 하마스의 기지를 약탈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제 더는 (하마스)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우리는 하마스의 터널을 목표로 한 공격을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테러범들은 터널에서 나와 제거되는 아니면 무조건 항복하게 될 것이다. 제3의 선택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갈란트 장관은 “우리 군은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그는 끝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 사회의 휴전 압박을 언급하면서 “우리에

겐 스톱워치가 없다. 우리에겐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꼭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에는 가자지구

지상전을 주도해온 이스라엘군 골라니 보병 연대가 하마스 의사당을 점령했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퍼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의사당 점령과 관련 사진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의회 건물은 2007년 하마스 통치가 시작된 이후 하마스 의원들의 전유물이었다.

한편,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헤즈볼라의 공격이 이어지는 북부 국경지대를 방문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북부지역 안보를 위한 강력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안보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집에 돌아 가기를 두려워하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병만 기자



새뮤얼 해스컬의 아내인 메이 리 해스컬과 메이 리의 부모인 가오산 리(오른쪽)과 엔상 왕(가운데)

美 LA서 엽기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

훼손된 아내 시신 발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용의자는 할리우드 유명 인사의 아들로 알려져 더 이목을 끌고 있다.

13일(현지시간)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6시께 LA 웨스트밸리 지역의 한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여성 시신의 몸통 부분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시신의 신원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황 조사를 통해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메이 리 해스컬(37)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남편인 새뮤얼 해스컬(35)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자녀 3명과 메이 리의 부모인 가오산 리(71), 엔상 왕(64)과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현재 가오산 리와 엔상 왕 부부도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다. 해스컬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들은 새뮤얼 해스컬이 체포되던 날 학교에 있는 것이 확인돼 당국이 둘보고 있다.

새뮤얼 해스컬이 아내와 장인·장모를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차량 2대 도 사리쳤다며 이 차들을 발견할 경우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방송 NBC4에 따르면 새뮤얼 해스컬은 지난 7일 일용직 인부들에게 집에서 대형 쓰레기봉투 3개를 치우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방송과 인터뷰한 일부들은 해스컬이 500달러를 주고 일을 맡겼고, 그가 봉투 안에 돌들이 가득 들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무게가 50파운드(약 23kg)가량인 봉투를 들자마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며, 이동 중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본 뒤 사람 시신 일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다시 돌아와 봉투를 놓고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NBC4와 지역 일간 LATimes는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해스컬의 집 안에서 다량의 혈흔과 살인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증거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해스컬은 현재 구금돼 있으며 이날 오후 기소될 예정이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할리우드의 유명 매니저먼트사 임원이었으며 현재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는 샘 해스컬로 알려졌다.

/ 차현우 기자

미얀마서 불법업체에 감금됐던 한국인 19명 풀려나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서 발생…외교부 “고수익 미끼로 감금해 불법행위 강요 증가”

미얀마에서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업체에 감금됐다가 미얀마 경찰을 통해 풀려났다.

외교부는 14일 “지난달 초 우리 국민이 미얀마 타칠레이의 지역에서 불법업체에 의해 감금됐다는 제보가 외교부 및 주미얀마대사관 등으로 전달됐다”며 “이를 미얀마 경찰 측에 전달하고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얀마 경찰은 지난달 하순 해당 업체를 수색해 한국인 1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한동안 이들을 구금하고 있다가 전날 양곤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은 해당 지역에 외국인 접근이 어렵고 치안이 잘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양곤으로 이송해 달라고 현지 당국에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미얀마 대사관은 우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미얀마가 현재 군정 통치 아래 있는 데다 현지 경찰이 이들의 불법입국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면서 구금 기간이 다소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취업사기를 당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거나 인전을 위협받아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의 접경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다. 이 지역에선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불법 활동을 벌이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취업사기를 당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거나 인전을 위협받아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가 올해 라오스에서도 3건가량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라오스 북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 한효성 기자

엔화 가치 33년 만의 최저치 접근…日정부 “만전의 대응”

뉴욕 외환시장서 1달러당 151.92엔으로 상승

엔/달러 환율이 또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엔/달러 환율은 13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1.92엔까지 상승했다.

이는 작년 최고치인 10월 21일의 1달러당 151.94엔에 거의 다가간 것으로, 이 수준만 넘어서면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

치는 1990년 이후 약 33년 만의 최저로 떨어지게 된다.

엔/달러 환율이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엔화 약세 행진이 멈추지 않자 일본 정부도 하루가 멀다고 ‘구두 개입’을 하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아침 기자회견에서 환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계속해서 만전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1.84엔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전날에도 “급격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긴장감을 갖고 시장을 보면서 만전의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장수경 기자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이 마을 습격…주민 70명 학살 참변

주민 “정부군-테러세력 충돌 이틀 뒤 벌어져”…희생자 대부분 노인·어린이



쿠데타로 집권한 부르ки나파소 군정 군인들

서아프리카 부르ки나파소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 한 마을을 습격해 노인과 어린아이 등 주민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었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부르ки나파소 북동부의 마을을 자운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을 주민 최소 70명을 학살했다고 정부 당국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희생자 대부분은 노인과 어린아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 시몬 그나누는 언론에 “현재 조사 단계에서 이 잔혹 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정체는 아직 파악되

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나누에 따르면 일이 벌어진 지 이틀 뒤 해당 지역 사법당국이 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으며 그로부터 나흘이 더 지나서 정부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해 집 수십채를 불에 탄 것을 발견했다.

한 보안 당국자는 AFP에 이번 학살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상태라고 밝혔다.

부르ки나파소 당국은 지난 4월에도 다른 마을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주민 136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져 조사 중이다.

주민들은 또한 정부가 테러세력을 막겠다며 모집한 수만 명의 자원 전투원들이 이 오하려 무고한 사람들을 테러리스트와 협조했다고 의심하며 마구잡이로 죽이고 있다고 호소한다.

/ 노건우 기자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3기 신도시로 이루어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고
도시에서 삶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도록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LH가 함께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의선 “어차피 전기차 수요 계속 늘어…운영의 묘 살릴 것”

“정주영 선대회장 ‘하면 된다’ 정신으로 노력할 각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동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 회장은 13일 울산공장 내 전기차(EV)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격적 투자를 유지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말에 “기준에 해왔던 투자이고 코스트(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어차피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면서 “(전동화 분야 투자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볼 생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미래 전동화 시대를 맞아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투자를 꾸준히 하되, 단기적 수요 상황에 맞춰 투자 속도와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최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감 움직임에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완성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과 포드 등은 최근 전기차 생산능력 확충

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련 투자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생각이다. 정 회장은 또 기공식 인사말에서 인

본주의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고, 또 현대차도 그런 틀 안

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재산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전 세계에서도 현대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휴머니티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현대 창업주 정주영 선대회장이 도전과 혁신을 강조했던 생전 메시지가 기공식 때 인공지능으로 복원돼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대회장님의 생각하셨던 그 정신, 그리고 ‘하면 된다’는 생각, 또 근면한 생각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의약품 e-라벨 확인하는 오유경 식약처장

식약처 “의약품 e-라벨 표시 품목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의약품의약품안전처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대상 품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종이로 제공되던 의약품 첨부 문서를 용기나 포장에 부착한 QR코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의료 기관 직접 투여 주사제 27개 품목(10개 제약사)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이 제도가 소비자, 업계, 의료 전문가 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 인지도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에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에스티의 충남 천안 공장 마련하는 취지다.

마련하는 취지다.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되는 가운데 문제부는 콘텐츠 기획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이 보편화된 만큼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OTT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 오창민 기자

을 이날 방문해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 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다. 생산 공장에서는 내용물이 충전된 주사제 바이알(병)들이 e-라벨이 인쇄된 띠지를 두른 채 이동되고 있었다.

완제품의 e-라벨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던 오 처장은 “이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 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측은 사업이 확대되면 소비자가 e-라벨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과 e-라벨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광도영 기자

“영상산업 5년 내 40조 규모로 육성”…정부, 1조원 펀드 신설

유인촌 장관,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킬러 콘텐츠 창출에 투자”

정부가 2021년 28조원 규모였던 영상 콘텐츠 산업의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장기적 지원에 나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원, 수출 규모를 18억달러 규모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1년 산업 규모가 28조원, 수출 규모가 9억2천만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산업 규모는 연 평균 6.1%, 수출은 연 평균 11.9%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애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

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다섯 편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천억원 규모, 2024~2028년 총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해 킬러 콘텐츠와 저작재산(IP)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의 모태펀드(문화계정)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투자금을

마련하는 취지다.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되는 가운데 문제부는 콘텐츠 기획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이 보편화된 만큼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OTT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 오창민 기자

‘국산헬기’ 수리온·LAH 해외서 첫선…KAI, 두바이 에어쇼 참가

물기를 처음 공개했다.

올해로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수리온은 250여대가 생산돼 육군, 해병대에서 쓰이고 있다. 군사 용도 외에도 경찰, 해경, 소방, 산림 등 다양한 파생 헬기 형태로 운용 중이다. 500MD 토우와 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할 LAH는 현재 양산 중으로, 육군의 항공 타격 작전(대기갑 전투) 및 공중강습 임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수리온과 LAH는 이번 에어쇼에서 고난도 및 특수 기동을 선보인다.

KAI는 에어쇼 기간 UAE를 비롯한 중동 및 아프리카 정부 고위 관계자, 군 수뇌부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이번 에어쇼는 T-50, FA-50에 이어 수리온과 LAH 등 회전익 항공기가 해외 무대에 첫선을 보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 정유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3~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에어쇼인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 국산 항공기와 인공위성 등 우주 제품과 우주 제품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두바이 에어쇼에는 20여개국 1천400여개 항공·방산업체가 참가해 180여대의 군용 및 상용 항공기를 전시하고 시범 비행을 한다.

KAI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전기차 운전자 73% ‘구매 추천’

“환경보호·유지비 절감”

국내 전기차 운전자 10명 중 7명은 주변에 전기차 구매를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기간인 지난 7월 4일~10월 12일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전기차 이용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9%가 ‘지인에게 전기차 구매를 추천한다’고 답했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3%였고, 나머지 17.8%는 ‘중립’이었다.

추천하는 사유(중복 응답)로는 ‘환경보호’와 ‘차량 가격·유지비 절감’이 각 31.6%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성능 및

고 대응 수칙을 숙지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전기차는 하부 배터리팩에 집중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 배터리가 손상돼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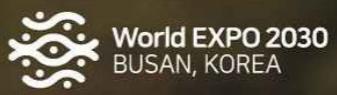
이동형(휴대용) 충전기 사용 시 전력 부하로 인한 전원 차단,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정된 충전 콘센트만 사용하고 연장선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거리 주행 목적이 아닌 일상 사용 시에는 배터리 충전량(SOC)을 30~9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 주차 시에는 충전량을 40~60% 수준으로 둘 것을 권장한다.

/ 권유희 기자



우리금융그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금리 최대 1%p 감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1년간 연체이자 납입액 원금상환지원(소상공인 포함)
성실상환고객 대상 서민금융 상품 원금 1% 감면
시니어/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 특화점포 신설청년도약 패키지 출시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 인하
노령층 전 채널(비대면, 창구, ATM) 수수료 면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기념행사 열려

김장호 구미시장 “50만 인구, 500억 달러 수출도시 구미시 재창조”

경북 구미시는 14일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 및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례에 이어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옆 광장에서 기념식, 정수대전 시장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겨 함께 위기를 해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 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가 열리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할 수 있다’ 정신으로 50만 인구, 500억 달러 수출도시 구미시를 재창조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추도 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다”며 “경상북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토대 위에 ‘지방화’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념과 공정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국가를 도약시키고, 서민친화적인 정책으

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경제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나간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전에 차분한 클래식 연주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축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했으며, 개회식 후에는 박 전 대통령 기념 영상 상영, 축사, 유족 대표 인사에 이어 시민이 참여한 국민 교육현장 릴레이 낭독 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예년과는 다르게 기념식이 끝난 후 신유, 김양 등 인기 가수와 구미시립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구미시는 행사장 인근에서 로컬푸드 판매, 구미 관광 기념품 판매,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 전시회 등 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 송원기 기자



수소트램 건설계획 발표하는 김두겸 울산시장

“국내 최초 수소트램 달린다” 울산서 실증 운행

426억 들여 올 연말까지 2천500km 주행

울산시는 14일 남구 매암동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실증 운행 시승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을 통한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가 도입할 예정인 수소트램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수소전기트램 소개와 출발 세리머니, 시승 체험, 수소 충전 시연 등 순으로 진행된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채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참여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시승 체험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소트램이 참석자 150여 명을 태우고 울산항역에서 삼비건널목까지 양복 4km 구간을 운행한다.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은 시가 2021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을 전담해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426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현대로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이 주관 사업자로 참여해 4개 과제를 수행한다.

4개 과제는 ▲ 수소전기트램용 시스템 통합 및 겸용 기술 개발 ▲ 수소전기트램 용 연료전지 요소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 ▲ 수소전기트램 기술 기준 및 주행성능평가 기술 개발 ▲ 수소전기트램 실증 환경 실증 및 운영 기술개발 등이다.

이 가운데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실증 환경 실증과 운영 기술개발은 현재 열차 운행이 중단된 울산항역~태화강역 구간에서 2천500km에 걸쳐 주행을 실증하는 것이다. 50억 2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 과제에는 범한퓨얼셀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로 운행하는 수소전기트램을 국내 최초로 울산에서 시승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 민지영 기자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팬클럽 회원들이 참석해 직접 장학금을 주며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찬원과 영남대를 사

랑하는 팬클럽 회원들의 긍정 에너지를 받아 영남대생들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경 기자

가수 이찬원 팬클럽 영남대에 4년째 장학금

누적 6천500여만원

를 시작해 4년째 장학금을 내고 있다. 누적 금액은 6천500여만원이다.

영남대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팬 모임인 ‘이찬원 엄마팬클럽’이 이찬원의 모교인 영남대에 최근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이찬원 엄마팬클럽은 2020년 이찬원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의미 있는 선물을 하자며 장학금 기부

로 1명을 선발해 모두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팬클럽 회원들이 참석해 직접 장학금을 주며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찬원과 영남대를 사

는 어느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포시의 4매립장 독점 사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송 사장은 이날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기약 없는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 7~10년이 걸리지만, 아직 장소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서로들 말로만 ‘핑퐁’을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사장은 또 환경부 산하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4자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역주민과 공사 노조가 찬성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만큼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황희정 기자

적 비율로는 김포에 약 85%, 인천에 약 15%가 걸쳐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간 4자 합의에 따라 소유권과 관할권을 모두 인천시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4매립장에 대한 모든 권한 역시 인천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사장도 “4매립장은 공유수면이라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_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_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_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울릉도 오징어 어획 부진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릉도 어민에게 선박 한 척당 최대 2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오징어 생산량

/ 신영준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아, 한번
해보이! 시|더"

세계의 대전환을 이끌어 갈 역동의 도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위대한 항해의 도시 **부산에 힘을 모읍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 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SK telecom

T roaming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내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제외)
0청년 요금제 가입 시 50% 할인 자동 적용 | 할인 횟수 제한 없음 | SK텔레콤 가족결합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수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파란만장한 LG 도전사…10년 암흑기+10년 도전기로 드디어 정상

2013년에 10년 만의 가을야구 출전…21년 만에 KS 진출해 29년 만에 감격의 우승

한국프로야구 최고 인기구단을 자부하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마침내 질곡의 역사를 끌었다. LG는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23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 wiz를 6-2로 제압해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한 1994년 이래 29년 만의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이다.

외국인 선수 제도가 1998년, 자유계약 선수(FA) 제도가 1999년에 각각 도입됐으나 LG는 현재 프로야구의 근간을 이루는 두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우승 삼폐인을 터뜨렸다. 1994년 우승 당시엔 외국인 선수가 없었으나 올해에는 '잠실 예수' 케이시 켈리와 LG 외국인 타자 잔혹사를 끊어낸 오스틴 딘이 우승의 주역으로 기념 사진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파란만장한 세월이었다. 다른 구단보다 돈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니고, 티가 나게 잘 못 쓰는 것도 아니었건만 한국시리즈는 쌍둥이를 30년 가까이 외면했다.

긴 역사의 텍사스, 한신이 감독을 자주 바꾸지 않은 것과 달리 LG는 1994년 8대 사령탑 이광환 전 감독이 구단의 두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한 이래 둑하면 감독을 갈아치웠다.

이런저런 이유가 가득했지만, 결국엔 우승을 못 하면 LG 감독은 지휘봉을 내놔야 했다. 쌍둥이 감독 자리는 '독이 든 성 배'라는 꼬리표가 자연스럽게 붙었다.

명문 구단으로 입지를 넓혀가던 1990



LG 트윈스, 29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

년대에는 LG의 이런 행보를 '유난스럽다' 정도로 봤지만, 암흑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2000년대 이후에는 구단의 팀 색깔과 장점마저 지우는 불행의 근원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이광환 전 감독이 중도 사퇴한 1996년 이래 LG를 이끈 사령탑은 12명. 이광은, 이순철, 박종훈 전 감독은 계약 기간 중 팀을 떠났다. 구단의 방향과 맞지 않는 이유로 2002년 팀을 한국시리즈로 인도한 김성근 전 감독은 쫓겨났다.

2003~2012년 10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던 LG를 2013년 포스트시즌으로 이끈 김기태 전 감독은 2014년 초 성적 부진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사령탑에서 내려왔다. 나머지 감독들은 계약 기간은 사수했으나 재계약은 연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다.

염경엽 현 감독이 LG의 20대 감독이니

얼마나 자주 장수가 바뀌었는지 계산이 쉽게 나온다.

LG가 우승을 노려볼 만한 '컨텐더'(도전자)로 위상이 올라선 것은 2019년 차명석 단장의 부임과 궤를 같이한다.

LG 투수 출신이자 투수 코치로 25년 이상 쌍둥이와 인연을 맺은 차 단장은 선수와 구단, 코치진의 사정을 꿰뚫어 '서울의 자존심'을 서서히 찾아가기 시작했다. 선수 스카우트, 육성, 1군 성적의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LG는 2019년 이래 5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어느덧 기울 야구 단골손님이 됐다.

한국시리즈 우승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지만, 쌍둥이는 소결음을 반복했다.

LG는 2019~2021년 3년 내리 준플레이오프에서 고배를 들었다. 큰 경기 경험에 적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6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오른 2022년에도 한국시리즈 진출을 코앞에 두고 주저앉았다. 재계약이 유력했던 뮤지현 전 감독은 결국 지휘봉을 염경엽 감독에게 넘겼다.

올해에도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완전체를 이룬 6월 27일 이래 내내 1위를 달려 결승선을 가장 먼저 끊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관리 야구로 염 감독은 투타의 전력을 훈련에 투입해 훈련에 넘겼다.

정우영, 고우석에게 의존하던 필승 계투조에 백승현, 유영찬, 김진성, 함덕주라는 새로운 얼굴이 가세했고, '별떼 불펜'은 투타의 전력을 훈련에 투입해 훈련에 넘겼다.

발 빠른 신민재는 일취월장한 타격 센스로 LG의 주전 2루수로 도약했고, 열사의 땅 미국 텍사스주에서 온 오스틴은 홈런 3위(23개), 타점 3위(95개)에 오르며 LG 외국인 타자 흑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염 감독의 철저한 준비, 선수들의 잠재력 폭발이 어우러져 LG는 정규리그 4위로 밀어서부터 올라온 2002년에 이어 21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고, 체력과 갈로 고전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한국시리즈 직행팀의 체력 우위와 1등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드디어 챔피언의 영광을 안았다.

10년의 암흑기 이후 10년의 체력 다시 기로 LG가 다시 한국프로야구의 중심에 섰다.

/ 최준용 기자



러닝으로 몸 푸는 축구대표팀 선수들

클린스만호, 찬바람 속에 첫 훈련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가자!

클린스만호 태극전사들이 초겨울 '칼바람'을 뚫고 11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3일 오후 목동주경기장에 모여 오는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싱가포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C조 1차전에 대비한 훈련에 나섰다.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낮 기온이 6도 아래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면서 선수들은 추위를 느끼며 잔뜩 움츠린 표정으로 훈련장에 모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싱가포르와 2차 예선 1차전 홈 경기와 오는 21일 중국과 2차전 원정에 대비해 '캡틴' 손흥민(토트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소' 황희찬(울버햄프턴), '철기둥' 김민재(뮌헨) 등 핵심 전력을 모두 소집했다.

비록 상대들이 약체로 분류되지만 내

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베스트 11'의 험습을 최대한 맞춰보겠다는 게 클린스만 감독의 복안이다. 다만 이날 훈련장에서 완전체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주말 K리그 경기를 치른 김영권, 설영우, 김태환, 조현우(이상 울산), 김진수, 문선민(이상 전북) 등과 김민재, 이강인은 대표팀 숙소의 헬스장에서 회복 훈련을 치렀다.

또 황의조(노리치시티), 오현규(셀틱), 조규성(미트윌란), 흥현석(핸트)은 내일 오전에 입국하는 터라 이날 야외 훈련에는 손흥민, 황희찬 등 11명만 참가했다.

한국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C조에서 중국, 싱가포르, 태국과 경쟁한다. 클린스만호는 싱가포르 전 이후 19일 중국으로 이동해 현지 적응에 나선 뒤 21일 중국 광동성 선전유니버시아드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2차전을 펼친다.

/ 이석용 기자

허훈·송교창 등 15일 전역…프로농구 판도 변화 예고



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kt는 또 2023-2024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한 문성곤도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부상에서 곧 복귀를 앞두고 있어 단독 1위 원주 DB(8승 1패) 추격에 박차를 가할 테세다.

개막 전에 '슈퍼 팀'으로 불리며 '양강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 부산 KCC와 서울 SK는 송교창과 안영준 복귀를 기다린다. KCC는 최준용이 지난 12일 고양 소노전에 복귀, KCC 유니폼을 입고 처음 정규리그 경기에 뛰었지만 최근 3연패 중이다. 2승 4패로 '슈퍼 팀'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내는 KCC는 2020-2021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송교창이 전역하면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기준 이승현, 허웅, 라건아와 새로 영입한 최준용, 알리제 드손 존슨에 송교창까지 합류하는 것이다. 다만 KCC 관계자는 "송교창이 무릎 쪽 통증으로 인해 곧바로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1월 말 정도 출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4승 4패로 중위권을 달리는 SK는 안영준의 복귀가 반갑다.

안영준은 다른 선수들과 달리 상근 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쳐 하루 늦은 16일에 전역한다. 김선형, 오세근, 허일영 등 베테랑들을 많이 보유한 SK는 시즌 초반 동아시아 슈퍼리그 일정을 병행하느라 일본, 대만 등 원정길에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내외과 플레이를 겸비한 안영준이 합류할 경우 팀 분위기를 새롭게 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최하위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가드 김나현이 돌아온다.

1승 7패로 부진한 모습의 한국가스공사는 김나현이 합류하면 기준의 이대현, 앤드류 니콜슨, 샘조세프 벨란겔 등과 함께 어느 정도 다른 팀들과 겨뤄 볼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소노가 KBL에서 검증된 외국인 선수 치나누 오누아쿠를 새로 영입, 중상 위권 도약을 노리는 등 전체 6라운드 가운데 2라운드로 향하는 프로농구 2023-2024시즌 정규리그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오영찬 기자



여자핸드볼 대표팀, 세계선수권 앞두고 13일부터 훈련 시작



가 8강에 진출,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 팀을 정한다.

격년제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서 한국은 1995년 한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다. 직전 대회인 2021년에는 32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최근 8강에 든 사례는 2009년 중국 대회 6위다.

선수단은 21일 프랑스로 출국, 유럽 현지 적응 훈련을 하다가 29일 노르웨이로 향한다.

/ 민수찬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PR이 퇴직연금은 예금보로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음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多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2년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로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평균기준 및 과세방법은 항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DC 저작권 및 과세수수료(후회)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회) 연 0.10%~0.30%(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PR 저작권 및 과세수수료(후회)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회)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당기계약 할인 및 디아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12·12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영화”

“19살 때 직접 들은 총격 소리…그때부터 12·12는 수수께끼이자 숙제”

오는 22일 개봉하는 김성수 감독의 신작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그린 작품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지 두 달도 안 돼 발생한 12·12는 권력 공백기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무력을 동원해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으로, 신군부 집권의 신호탄이었다.

“이야기가 벌어지는 9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관객들이 들어오도록 했어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중간 어디쯤에서 관객이 당시 상황을 바로 옆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죠.”



‘서울의 봄’ 개봉을 앞두고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이 영화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모델로 한 전두광(황정민 분)과 그에 맞선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모델로 한 이태신(정우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수라’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 감독과 두 배우가 다시 손을 잡았다.

황정민과 정우성 외에도 이성민, 박해준, 김성균, 김의성, 정만식, 유성주, 안내상, 특별 출연한 정해인, 이준혁 등 비중 있는 배우들이 여러 명 등장한다.

김 감독은 “마치 (방송에서) 취재할 때 (카메라가 현장에서) 캐아다니는 느낌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배우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기력이 입증된 배우들이라 별다른 연출 지시 없이도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절묘한 동작을 보여줬다고 김 감독은 회고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반란군과

제작사로부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김회는 남달랐다고 한다.

그는 “시나리오를 받은 순간부터 그 세계에 빠져들었다”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텔립과 흥분도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렇게 1년을 고민한 김 감독은 12·12의 영화화로 인생의 숙제를 풀기로 결심하고, 각색을 포함한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2월 촬영에 들어갔다.

김 감독은 이 영화의 연출을 망설인 데 대해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영화의 중심에 있다 보니 영화를 찍고 나면 이들이 ‘멋진 악당’처럼 묘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반란군에 맞선 사람들에게 힘을 싣는 것이었다.

12·12 당시에도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중심으로 반란 진압에 나선 군인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진 못했다.

김 감독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되 반란군에 맞선 군인들의 이야기를 부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수도경비사령관 캐릭터를 확장하면서 그의 시선을 따라가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편의 재밌는 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이었다.

“저는 역사가는 아니잖아요. 자료는 충분히 조사한 만큼, 제가 생각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죠. 재미를 추구하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나 실제 있었던 사건의 뼈대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두 개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어요.”

/ 이찬우 기자

マイ클 잭슨이 40년전 펩시 광고서 입은 가죽재킷 4억원에 낙찰



‘펩시 황제’ 마이클 잭슨이 약 40년 전 펩시의 TV 광고에서 입었던 가죽 재킷이 4억원에 팔렸다.

12일 영국 스카이뉴스와 BBC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영국 런던의 경매업체 프롭스토어 옥션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잭슨이 1984년 펩시 콜라 광고에서 입은 가죽 재킷이 25만 파운드(약 4억원)에 낙찰됐다.

검정과 흰색 가죽으로 된 이 재킷은 1984년 펩시가 잭슨을 모델로 기용해 진행한 ‘뉴제너레이션’ 캠페인 가운데 첫 번째 광고에서 잭슨이 착용한 것이다.

광고에서 잭슨은 이 흑백 가죽 재

킷을 입고 ‘빌리진’을 개시한 곡을 부르며 거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춤을 춘다. 경매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재킷은 웨델 톰슨이라는 사람이 경매에 내놓았다.

잭슨은 생전에 톰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자주 들렸고 가족·직원들과도 친해져 같이 저녁을 먹거나 놀이공원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톰슨은 1984년 초 잭슨이 미용실에 있을 때 이 재킷을 선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잭슨은 자신이 입고 온 재킷을 톰슨이 한번 걸쳐본 뒤 돌려주려 하자 그냥 가지라 하면서 곧 나올 펩시 광고 촬영 때 그 옷을 입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매업체는 톰슨이 이 재킷을 입고 잭슨과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에는 잭슨의 친필 메시지와 서명이 적혀 있다.

업체 측은 이 재킷의 예상가를 20만 파운드에서 최고 40만파운드로 제시했는데 낙찰가는 하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 백서연 기자



올해 日홍백가합전에 르세라핌·스트레이키즈 등 K팝 4팀 출연

일본 최고 권위의 연말 방송 프로그램인 NHK 홍백가합전에 올해도 르세라핌,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니쥬 등 K팝 그룹 4개 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NHK가 13일 발표한 올해 연말 홍백가합전의 출연자 명단 여성팀에는 하이브 계열 쏘스뮤지 소속 르세라핌과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니쥬가 포함됐다.

남성팀으로는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트레이키즈와 하이브 계열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세븐틴이 출연한다.

앞서 작년 홍백가합전에는 트와이스와 아이브, 르세라핌, 니쥬가 출연진 명단에 올랐다.

올해로 74회를 맞는 홍백가합전은 매

년 12월 31일 출연진이 여성팀(홍팀)과 남성팀(백팀)으로 나뉘 노래 대결을 펼치는 형식으로 꾸며지는 프로그램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올해는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주제가를 부른 밴드 텐피트(10-FEET)와 내달 첫 내한 공연 예정인 요아소비 등 총 44개 팀이 출연한다.

NHK는 이번 출연자 선정 때 창업자의 과거 연습생 성적과 사실이 드러난 유명 연예기획사인 옛 자니즈(현 스마일업) 소속 연예인은 배제했다.

홍백가합전에 자니즈 소속 연예인이 빠진 것은 1979년 이후 44년 만이라고 교통신은 전했다.

/ 양희진 기자

‘응답하라 1988’ 커플 류준열-혜리, 공개 연애 6년 만에 결별



한화 덕선을 연기했고, 2017년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류준열은 2015년 영화 ‘소셜포비아’로 데뷔해 ‘응답하라 1988’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드라마 ‘운빨로맨스’, ‘인간 실격’, 영화 ‘더킹’, ‘택시운전자’, ‘독전’, ‘올빼미’ 등에 출연했다.

배우 류준열(37)과 결혼한 걸스데이 출신 혜리(29)가 결별했다.

류준열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와 혜리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아이엔지는 “둘의 결별한 게 맞는다”고 13일 밝혔다.

8살 차이인 류준열과 혜리는 2015년 방송한 tvN ‘응답하라 1988’에서 각각 정

혜리는 2010년 결스데이로 데뷔했으며 마찬가지로 ‘응답하라 1988’를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후 연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드라마 ‘투깝스’, ‘간 떨어지는 동거’,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등에 출연했다.

/ 백서연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중동의 미래를 함께 열어갑니다

기회의 땅 중동에서 더 큰 꿈을 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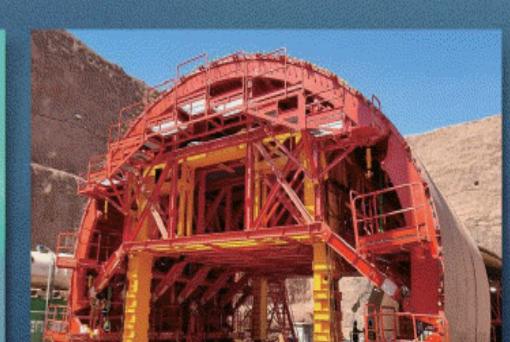
모듈러 공법, 탄소 저감 등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일부터 청정수소 생산을 통한 에너지 저감까지

중동의 미래를 여는 가슴 벅찬 도전입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자 대한민국, One Team KOREA!”



NEOM/OXAGON-SAMSUNG C&T
Joint Development Agreement
for Master Plan of Construction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Saudi Arabia Construction Cooperation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내 집에서 내일의 집까지 KB부동산

살고 있는 집에서, 사고 싶은 집까지
한번에 관리하는 맞춤형 부동산 정보 앱



내 집 찾을 때

빠른 시세 트렌드와
차별화된 임지 분석을 통해
나에게 딱 맞춘 매물 정보 제공



내 집 마련할 때

오직 KB부동산 고객에게만
추가 우대 금리 제공 (1년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0.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0.2%



내 집 관리할 때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가격 변동 내용 알림 및
생활 편의 정보 제공



지금 다운로드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베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최대 연체이자율은 15%입니다.)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기본금리 15%)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 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상환방법 및 이자 부과 시기 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KB부동산 매물 구입자금 대출 서비스에 관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가입 전 서비스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리 우대 혜택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 부동산금융상담팀(☎1644-9571)에 문의하시거나 KB부동산 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431호(2023.08.25), 유효기간 2023.08.25~2023.12.31 까지